



창원 0/12 진주 4/13 양산 3/13 거제 2/13 밀양 5/13 거창 5/11 합천 6/13

경남 진주시 동진로 104-1 대표전화 055-744-2300

뉴스경남

www.newsngn.com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진주시, 올해도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국 1위 굳히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올해 해외시장 확대, 시설현대화 주력
“진주 농산물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진주시가 올해도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국 제1위 굳히기에 나선다.

진주시가 올해도 신선농산물 생산·수출 전국 제1위를 굳히기에 나선다.

시는 1995년 신선농산물 수출을 시작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한국농업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 품질의 고급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수출시책을 꾸준히 펼쳐 기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신선농산물 4372만 불, 가공농산물 514만 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 실적인 4886만 불을 달성했다.

2011년 신선농산물 수출 3000만 불을 달성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며, 2016년도에는 신선농산물 3870만 불, 2017년도에는 4372만 불의 수출을 달성해 전년 대비 13%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부터 매년 7%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딸기는 총 3036만 불을 수출해 최대 성장을 이끈 가운데, 파프리카도 970만 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을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aT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수출정보통계에 따르면 진주 딸기는 전국의 수출물량의 78%, 파프리카는 11%를 차지해 진주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의 공급량 조절과 내수시장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건비 상승 등 수출농산물의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시에는 15개 농산물전문 수출단지 500ha에 560여 수출농가가 매년 농산물 4500만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올해도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업 기반조성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6개 분

야 21개 사업에 130여억 원을 투입해 질적, 양적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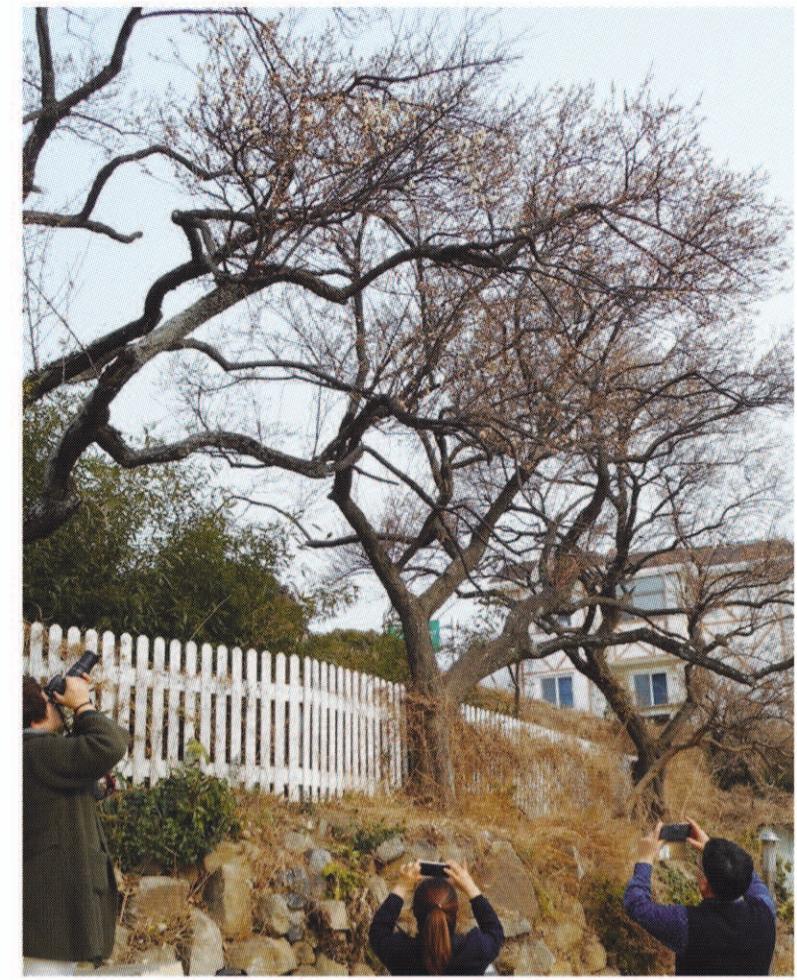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농산물수출전문단지) △수출물류비지원사업(5개 사업)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3개 사업) △수출 우수농가지원사업(10개 사업) △수출해외시장개척 △잔류농약 검정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체 농약잔류검사실 운영으로 매년 350여 점 이상의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수출탑 시상은 수출농업 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해외특판전개최,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출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시장에서 벗어나 미주·유럽, 중동, 동남아 신흥국 등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국 다변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진주 농산물이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욱 기자



봄소식 전하는 거제시 일운면 춘당매 활짝 거제시 일운면 구조리해수욕장 주변 옛 초등학교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 춘당매(春堂梅, 매화)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이 춘당매는 구조리초등학교가 설립된 1940년도 중반기에 10년생가령의 매화 20여 주를 심었으나 고사하고 현재 4그루만 남았으며, 수령 100년 가까이 됐다. 강맹순 기자

창원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

창원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 가입을 추진한다.

창원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세로 지난 연말 기준 11.8%로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노인계층의 경제활동과 건강, 의료, 여가생활 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란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다.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하며,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포용 ▲고령자지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 등 고령친화의 ‘8대 영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노노케어, 공의활동, 인력파견 사업, 취업교육비 지원 등 올해 7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교육공간, 정보제공, 취업연계, 힐링쉼터, 어르신 소득 창출을 위한 생

산물품 판매 등 노인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생활체육과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 있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노강사 활성화 등 시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인증 추진을 위해 국제세계보건기구 노령친화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창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일 기자

道, 봄 개학 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350여 개소

경남도는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2350여 개소의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음료류, 캔디류, 빙과류, 떡볶이, 핫도그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학교매점, 학교 주변 편의점, 문식점, 문구점 등 2350여 개소다.

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영업자 기본안전 수칙 관련 캠페인 및 어린이 대상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모바일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mymy@newsngn.com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www.moorim.co.kr

카드 단말기 전문업체
K정보통신
포스 시스템
카드단말기
진주시 동진로 104-1 ■전화 055744-6000 ■팩스 055744-2305
승인시스템
제2721호

무림,
종이 그 이상을
꿈꾸다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

- + 국내 최초 인쇄용지 대량 생산
- + 국내 최초 펠프 생산
- + 국내 유일 펠프·제지 일관화 공장
- + 전 세계 105개국 수출

“권력 악용한 성폭력, 가중 처벌해야”

이낙연 총리 “GM사태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악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안건 중 하나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 가 늘어났다”며 “이러한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몰카 범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오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강자가 악자를 짓밟는 일은 인류사회에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고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군산에서는 지난해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는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동계 스포츠의 열렬한 팬’인 이방카 고문이 “미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하며 주최국인 한국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방카 고문은 “한미동맹을 재확인 할 것”이라는 게 해당 보도 내용이다.

WP에 따르면, 이방카 고문은 23일 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없이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22일 대미(對美) 설득전략을 정비하며 관련 준비에 나섰다.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는 이방카 고문은 23일 민항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출국하는 3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동계 스포츠의 열렬한 팬’인 이방카 고문이 “미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하며 주최국인 한국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방카 고문은 “한미동맹을 재확인 할 것”이라는 게 해당 보도 내용이다.

WP에 따르면, 이방카 고문은 23일 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다. 이후 24~25일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며 미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볼 예정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탈북자들과의 면담’이나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에 나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방카 고문은 23일 만찬과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 등 최소 2차례 이상 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대북 관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북미대화 중재 노력과 함께 양국 간 통상문제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또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척이자 최측근으로도 꼽히는 만큼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기류 점검에도 이번 방한이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정상 통화도 이방카 고문 한국 방문 이후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방카 고문이 올림픽 폐막식에 오기 전에 그 이후 (한미 정상) 통화 계기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방카 고문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비(非)전문가인 만큼 다소 제한된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도 일부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결에 중요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 싸움을 건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모욕적인 일”이라고 WP가 비판했다.

WP는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퀴터 부과 등을 가능케 하는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지나친’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들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경제학자분’조차 따르지 않은 조치로 꼬집은 신문은 상무부가 “미국 내 생산된 철강의 3%만 방위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제 현실과 관련해 매우 솔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수입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부분은 우리가 공동의 방위 협약을 맺고 있는 캐나다,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온다”며 상무부 논리의 허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견디는 미국 주도 노력에 매우 중요하는데, 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과 무역싸움을 걸고 있는 현실을 갑질로 불가해하고 모욕적으로 만든다”고 맹비난했다. 권희재 기자

靑, 이방카 방한 대미전략 정비…대북메시지 ‘촉각’

23일 만찬, 폐회식 등 최소 2차례 文대통령과 조우 예상

WP “美, 북핵 중요한 한국에 무역싸움 납득 안돼” 비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없이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22일 대미(對美) 설득전략을 정비하며 관련 준비에 나섰다.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는 이방카 고문은 23일 민항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출국하는 3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동계 스포츠의 열렬한 팬’인 이방카 고문이 “미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하며 주최국인 한국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방카 고문은 23일 만찬과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 등 최소 2차례 이상 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대북 관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북미대화 중재 노력과 함께 양국 간 통상문제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

한국당 인물난에 올드보이 카드?…차출설 모락모락

오세훈·이완구·이인제·김태호 등…고육지책 분석

6·13 지방선거가 넉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직 시장·도지사 등 ‘올드보이 차출’에 나서는 모양새다.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마땅한 필승카드를 찾지 못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올드보이 차출설’은 흥준표 대표가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한 후 관망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영입을 거론하면서�다.

홍 대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오 전 시장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차출에 대해 “원 오브 멤(One of

them·여러 명 중 한 명)”이라며 “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당을 이끌어나갈지도 자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 심지어는 한국당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여권의 인물 포화에 비해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충남지사 후보로 ‘와일드캐드’로 민선 4기 충남지사 출신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총리 취

임 두 달여 만에 사퇴했던 이 전 총리 스스로가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홍 대표가 “내 재신임을 묻는 선거”라며 배수진을 친 경남지사 역시 올드보이 간 경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인 박완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윤한홍 의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당 일각에서는 민선 3·4기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전 지사의 ‘차출론’도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현역의 재공천이 유력하다는 게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미경 진주시의원, 기획문화위원장 선출돼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수요일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의회 7대 후반기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을 기획문화위원회로 선출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8일 전임 강길선 기획문화위원장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원직 상실에 따른 궐위를 사유로 실시됐으

며 자유한국당 박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정립 의원 2명이 출마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미경 의원이 기획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정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예비후보자 검증 시작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경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권문상)는 지난 21일 오전 회의를 개최, 예비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빙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며,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

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 자격심사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즉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 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준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같은 기준안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구정숙 기자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양산상공회의소

개인택시 진주지부 “브라보 택시제도 도입하라”

도내 15개 시·군에서 성공적 사업수행…진주·양산·통영만 안해



개인택시 진주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라보 택시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진주시에도 브라보 택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택시 진주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22일 오후 1시 20분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브라보 택시제도의 도입으로 면 단위 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분산효과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진주시에 개인택시 1006 대, 법인택시 680여 대로 총 1700여 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택시 승객 감소로 7000 여 명의 택시종사자 가족들이 빙곤증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12년 택시 대중교통의 법적인 인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특별정책으로 감차정책을 마련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진주시의 경우 단 한대도 감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구비례 택시 적정 대수인 종량제 조사결과 420여 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는 곳마다 빈 택시로 넘쳐나고 있는바 특히, 늘어나는 자가용과 대리운전, 김영란법에 따른 회식문화 간소화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희망택시 등으로 오지 주민들이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해 1월부터 경남에도 15개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양산시와 통영시, 진주시 등 3개 도시만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농통합으로 진주시 동부 5 개 면을 비롯해 수곡, 명석, 대평, 미천, 대곡 등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브라보 택시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진주시와 관계기관 등에 촉구했다. 구정숙 기자

강민국, 10대 정책투어 제5탄 ‘마이소’ 프로젝트 공개

‘350만 도민 속으로 민국이가 간다’ 프로젝트 이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민국 도의원이 10대 정책 공약인 ‘350만 도민 속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투어의 5탄인 ‘마이소’ 프로젝트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와 치안 등 생활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진주소방서를 방문해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비 상황을 파악하고, 화재 취약 지역인 도내 전통 시장과 진주고려병

원 등을 방문, 안전점검을 하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개축 및 화재 예방 시설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민국 도의원의 마이소 프로젝트에는 △지진보험 가입 시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 △마산 의료원 종증외상센터 설치 △다문화 119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지진보험 가입 공약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취약 가정에 대한 지진 보험 가입 지원,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의 지진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내진 설계 강화 등에 관한 정책이다.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공약에는 재난 위험 시설 철거 및 개축 지원과 취약계층과 위험 주거 시설에 소화기 지급, 범죄 사각지대에 CCTV, 가로등과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증외상센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종증외상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도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도내 소방 헬기를 닦아 헬기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도내의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각국 언어 통역 및 행정지원 담당자를 배정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 119를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포항 지진과 제천과 밀양의 화재 등을 보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재난과 화재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와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일우 기자
km6053@hanmail.net

김영문 관세청장, 경남 서부세관 현장 점검

민·관 소통강화로 항공산업 관세행정 총력지원 약속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21일 경남서부세관을 방문해 일선 현장을 돌아보고 직원 및 기업과 소통의 자리리를 마련했다.

김 청장은 사천시 소재 ㈜ASTG사 항공산업 현장을 들러보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로 이동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산업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관세청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

통영해경, 순직 해경·해군 합동 위령제 현화

44년 전 수송정 침몰, 159명(해경 50명, 해군 109명) 목숨 잃어

통영해경은 22일 44년 전 통영시 앞바다에서 침몰사고로 순직한 해경(전경)·해군 159명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넋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에서 실시된 위령제는 유족과 해군 159기 동기회원, 전국 해군동우회원과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위령제는 해군의장대 조총 발사와 진혼곡연주, 분향, 현화,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

행됐다.

한편 이 위령제는 지난 1974년 2월 22일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통영충렬사와 한산도 제승당을 참배한 후 돌아가던 해군 예인정이 통영항 장좌섬 앞바다에서 돌풍으로 해군 YTL 수송정이 침몰해 해경 11기 50명, 해군 159기 103명, 해군장병 6명 총 159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김갑조 기자

경남청, 취학 대상 아동 소재 안전 집중 점검

취학 대상 아동 예년보다 신속하게 소재·안전 확인

경남경찰청은 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각 지역교육청, 지자체 등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됐다.

예비소집 후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학교장이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경찰은 학교 측의 소재 불명이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소재 수사 의뢰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점검 절차는 학교별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학교, 읍면동은 2차 예비소집 및 출입국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경찰을 통해 아동 소재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만2000명 중 현재까지 소재수사의뢰 2건 접수, 2건 소재 확인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수사의뢰 3건(전원 소재 확인)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 하여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통지아동수는 3만 2812명이다. 이중 경찰 소재확인 조사의뢰는 2건으로 2건 모두 소재 확인됐다.

체계적 경남청 여성보호계장은 “예비소집 기간 전 경찰·도교육청·지자체 간 한발 빠른 학라인 구축으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2명) 모두, 신속한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창원시, 2017년 사회공헌 유공자 감사패 전달



창원시는 지난 21일 ‘2017년 사회공헌(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17년 사회공헌(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단체 등) 12개소와 개인 14명에게 유공자 감사패 전달, BNK경

남은행 사회공헌시례 소개, 유공자와 ‘대학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으며, 창원시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매년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기업과 가정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시는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

민행복에 두고 포용과 상생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으므로 지역의 민간자원들도 복지사업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한 해 창원시는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로 31억9000여만 원의 성금·품목을 모금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꿈나무키우기’ 결연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결연사업’, ‘희망드림 창원뱅크’, 수시 기탁 성·금품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6만9000여 세대에게 저소득 아동 자녀 교육비 및 생계비,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문재일 기자

OLIVE CHICKEN

올리브치킨 아쿠아리우스점

통영 사동면사무소 방향
성포 농협주유소
대성 투천화우주상가
아쿠아리우스 리조트 내
BBQ 플리브카페

포카라 스테이크 출시

예약문의

055-682-6050 / 010-9273-2253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좀처럼 근절 안돼

도로에 마구 투기하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청소대행업체만 애 먹고 있어 대비책 시급



진주시가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주시내 도심지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생활용 쓰레기가 점점 늘어

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일반 쓰레기 길거리 무단투기를 막고자 일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와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온갖 방안을 총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

그동안은 불법 투기 쓰레기의 무조간 단속하고, 청소수거업체들이 수거하는 형태를 고수해 왔으나 아직도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된 지역은 도심은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녁시간이면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 투기 되는 쓰레기가 줄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는 그나마 쓰레기 불법 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단속 등 관리가 잘 안되는 일부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두리 주택권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쓰레기를 비롯해 가구, 생활 쓰레기를 도로에 마구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단속이 원활하지 못한 공휴일의

경우 불법 투기가 더욱 심각해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처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투기로 인해 청소수거업체 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복지센터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놓고 있어 암시적인 시민들만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투기 현상이 이어질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여름철이면 파리·모기 폐가 발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엄청난 환경의 질적 악화가 유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쓰레기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맞지만, 이는 시민의식 수준이 일정 단계에 올라갔을 때 가능하다”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암시불량 지역 주변은 스스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공민배 예비후보, 남부해안 동서 철도 건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공민배 전 청원시장은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남해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새로운 경남 미래비전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민예비후보는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경남 도전의 핵심은 일자리창출과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남해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신(新)경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각 자치정부 간 경제공동체 구축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김해~청원~통영~사천~광양~순천을 잇는 가칭 ‘남부해안 동서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부 해양 동서 고속철도 신설노선은 총연장 180~200km 약 7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

같은당 김경수 국회의원의 도지사 전략공천 견제



공민배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해안 동서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1 제공)

업으로, 동서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영·호남이 1

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남해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도지사

에 당선되면 울산, 부산, 경남, 전남 등 4개 지방정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남부해안 동서 고속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예비후보는 이날 남북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거제~김천 간 고속철도 신설, 창원~동대구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김경수 국회의원 도지자 출마와 관련해서는 “현재 당현당구 상 당내 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는 광주, 전남, 충북 등 우세지역의 전략공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경남은 우세지역도 아니고 그간 전략공천을 안 해왔다”며 김경수 의원의 전략공천을 견제했다.

공예비후보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일자리문제, 경제, 사회·복지, 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우리 경남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새로운 경남건설을 위한 지역별 공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기자

진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농협 진주시지부에서 관내 농협지부 농정지원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원사업 및 국민공모제 홍보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농정지원단 담당자들은 농협을 통한 농촌지원 외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취지, 신청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설명을 듣고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영세농민에 적극 흥보해 집수리,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 효과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유전희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촌지원사업과 더불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농촌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혜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복지시설, 소외계층지원, 농어촌지원 등 55건을 집행, 연인원 306명을 투입했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진주준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기존의 집행기관 중심의 집행 방식을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채택된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지원하는 수혜자 중심의 제도를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다.

유용식 기자

道, 철새 북상 시기 AI 방역고삐 더 쥔다

26일~내달 16일까지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경남도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야생 철새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소하천)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AI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 말부터 3월까지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야생조류와 농장 간 AI전파 연결고리를 끊어, AI 발생 방지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에 따른 것이다.

점검내용은 △소독설비 설치(운영) 및 기록관리 여부 △유료 소독제 사용 및 가금 거래 적정 여부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농장주 책임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지도·계도 위주의 점검을 지향하고, 기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

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철새 도리지 탐방객에 대해서는 철새 분

번 접촉 금지 및 향후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남도 AI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해 가금 사육농장에서 활시 철새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도 방역슬로건(1 Step More ! 1 Step Ahead !,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우 기자

진주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진주시 5030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진

주시는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 표준지공시지는 대안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585만 원, 최저는 금곡면 소재 임야로 39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나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내달 15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기준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유용식 기자

창원시 의창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창원시 의창구는 ‘사람중심’의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용호고 앞 사거리에 설치하기로 했다.

용호고 앞 사거리는 인근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와 용호초교 등 학교 밀집 지역으로 교통약자 및 보행량이 많아 평소 주

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설치 건의가 계속 발생된 곳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대각선 목적지까지 두 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던 것을 한 번 만에 건너갈 수 있어 보행자에게 매우 편리한 시설이다. 특히 차

환경이 조성돼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용 의창구청장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보행자의 편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정체될 우려가 있어 영향 평가 후 신증하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기자

박대출, 지선 총괄기획단 홍보소위원장 임명

“좋은 정책과 인물들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



박대출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기획본부 홍보소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진주시갑)이 22일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기획본부 홍보소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물들이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홍보소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임명식수여식 이후 “이번 주 내 중앙당 공심부 규정을 마무리하고, 지방 공관위 지침도 마무리할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 이후 미국의 선택이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나라 운영은 ‘나 몰라라’하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정욱 기자

경남대 ‘2018년 산학협력 FAIR’ 개최

경남대학교는 지난 21일 한마미래관 1층에서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에 참여한 가족회사와 참여학과 교수의 성과를 공유·격려하기 위한 교류의 장인 ‘2018 산학협력 FAI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LINC+사업단 주관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작, 가족회사 ALL-SET 지원, 산학협력협의체 우수사례 등 4개 업체에 이전한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팀명 3M이 개발한 ‘R-134a 태양열 heat pump cycle 유로형상 최적화’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 산학협력 페스티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상을 받았으며, 그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해 소정의 이전료를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조경특강에서는 경남대학교 경진대회 소개에서 이어 2017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김경인 테크가 참여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연구책임자 김동현 교수)가 소개됐다. 이 과제를 통해 기술이전 수입료 1200만 원, 특허출원 및 논문제작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어 주부마C&E와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인정받아 ‘2017 산학협력 페스티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상을 받았으며, 그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해 소정의 이전료를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2017 경남대 산학협력 가족회사에 게 현관 전달, 최우수 가족회사 20개 기업 및 우수 가족회사 책임교수 9명 등 산학협력 유공자에 대해서는 LINC+사업단장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전병칠 기자



경남대학교가 지난 21일 한마미래관 1층에서 ‘2018 산학협력 FAIR’를 개최했다.

임창호 함양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임창호 함양군수가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경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임 군수는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개입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뉴스 경남

지방자치

창원소방본부-하이트진로 '1원의 기적' 모금액 전달

시민 안전위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1일 본부장실에서 권순호 분재부장, 정필영 하이트진로 경남권역본부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협약으로 맺은 '1원의 기적' 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1원의 기적'은 창원소방본부와 하이트진로 경남권역본부가 시민안전 지원 및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맺은 협약으로, 지난 2016년부터 창원시에서 판매되는 하이트진로 맥주 1병당 1원씩 적립해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창원소방과 지역기업의 조직 상생과 창원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모금액 500만 원으로 소화기 175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50개

를 구매해 창원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175세대에 세 대별로 소화기 1개와 감지기 2개씩을 보급했으며, 현재까지 '1원의 기적' 모금액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구입 및 지원을 했고,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에도 지난해 하반기 5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정필영 하이트진로 경남권역본부장은 "우리의 제품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매개체라 생각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1원의 기적에 동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



창원소방본부-하이트진로 '1원의 기적' 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1원이 모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1원이 모

여 기적을 이룬 것처럼 시민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모여 안전한 창원시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철 기자

하동야생차문화축제 5월 19~22일 열린다

축제 일정·주제·슬로건·기본방향 확정...지원봉사자 모집 등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하동군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일정과 슬로건, 기본방향 등을 확정하고 축제를 지원할 지원봉사자 모집 등

집에 나섰다.

하동군은 이번 야생차문화축제 모토를 '하동야생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로

군은 이같은 축제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의 통역 지원을 위해 내달 19일까지 일반 및 통역 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 봉사자의 경우 만 65세 이하 누구나, 통역 봉사자는 만 18세 이상 영어·일어·중국어 가운데 1개 이상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 안내와 함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종합안내소, 전시관, 체험시설 등에 배치돼 행사 운영을 돋울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군청 문화관광실로 방문하거나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이번 축제 및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문화관광실 축제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숙 기자

남해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

남해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일자리 사업과 경리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집행 중점 관리대상인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등에 대한

집행률 향상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신속집행 사업비 규모는 모두 2682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목표인 55.5%보다 높은 59%, 1582억 원을

상반기 자체목표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 어려움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내달 말까지 일자리사업 예산 약 3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 입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과 적격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최대 집행, 목

표액 달성을 통해 우수부서 포상 등 상반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

이상록 기획감사실장은 "신속집행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제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사업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SOC 사업도 관리 감독하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도영 기자

진주시 공고 제2018-345호

공시 송달 공고

□ 공고대상 : 경남 진주시 하대동 345번지 * * * * * 주대 * * 기 외 107건

□ 공고기간 : 2018. 2. 22 ~ 2018. 3. 8.(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 및 지역가입자 2월 본부과고지서 반송분(118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본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불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거나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8.06.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2월 22일

진주시

자동차의무보험 2018년 2월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대상

연번	성명	차량번호	주 소	발부인자	미폐단서유
1	(주)대**기	경51950**42	경남 진주시 하대동 245번지***	2/6	폐문부재
2	이*교**	경51950**43	경남 진주시 하대동 245번지***	2/6	폐문부재
3	(주)에**시스템	경51950**01	경남 진주시 하대동 34번***	2/6	수수익인명
4	(주)*부**발	경51950**74	경남 진주시 하대동 311*****	2/6	폐문부재
5	K****OV IMOMAI**	63935**	경남 진주시 금곡면 금곡리 1*****	2/6	폐문부재
6	N***N THUY ****	47109**	경남 진주시 중앙1동 15*****	2/6	수수익인명
7	김*석	49948**	경남 진주시 바이로 92*****	2/6	폐문부재
8	김*옥	65604**	경남 진주시 하대동 245번지***	2/6	이사불명
9	김*구	경51950**53	경남 진주시 하대동 245번지***	2/6	폐문부재
10	김*중	34595**	경남 진주시 금곡면 송곡리 1*****	2/6	수수익인명
11	김*수	61560**	경남 진주시 하대동 16*****	2/6	폐문부재
12	금*우(주)	8233**	경남 진주시 하대동 16*****	2/6	이사불명
13	김*경	8858**	경남 진주시 하대동 16*****	2/6	수수익인명
14	충복부자**31	경남 진주시 미판리 162번지***	2/6	폐문부재	
15	김*석	21312**	경남 진주시 미판리 162번지***	2/6	폐문부재
16	김*원	65504**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17	김*숙	33781**	경남 진주시 청월동 67*****	2/6	폐문부재
18	김*경	65605**	경남 진주시 청월동 67*****	2/6	폐문부재
19	김*현	61607**	경남 진주시 청월동 125*****	2/6	폐문부재
20	김*한	경51950**94	경남 진주시 청월동 92*****	2/6	폐문부재
21	김*석	61223**	경남 진주시 금곡면 천연리 1*****	2/6	폐문부재
22	김*부	05936**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23	김*우	15520**	경남 진주시 명성면 광제리 3*****	2/6	폐문부재
24	김*경	26503**	경남 진주시 명성면 광제리 3*****	2/6	폐문부재
25	김*경	서울62**47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26	김*경	39694**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27	김*경	39695**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28	김*중	90389**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29	김*범	90390**06	경남 진주시 대로 162번지***	2/6	폐문부재
30	김*경	05564**	경남 진주시 대로 162번지***	2/6	수수익인명
31	김*수	95655**	경남 진주시 청월동 28번지***	2/6	폐문부재
32	김*우	88974**	경남 진주시 청월동 131*****	2/6	폐문부재
33	김*선	97158**	경남 진주시 청월동 131*****	2/6	폐문부재
34	김*우	41919**	경남 진주시 청월동 131*****	2/6	폐문부재
35	김*주	54059**	경남 진주시 청월동 62 (상)*****	2/6	폐문부재
36	김*솔	22911**	경남 진주시 청월동 135*****	2/6	폐문부재
37	김*주	97157**	경남 진주시 모현읍 181번지***	2/6	폐문부재
38	김*숙	30438**	경남 진주시 청월동 135*****	2/6	폐문부재
39	김*경	22760**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8번지***	2/6	폐문부재
40	김*한	61609**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8번지***	2/6	폐문부재
41	김*경	65764**	경남 진주시 청월동 205*****	2/6	폐문부재
42	김*경	65765**	경남 진주시 청월동 205*****	2/6	폐문부재
43	김*기	경51950**63	경남 진주시 대로 239 *****	2/6	이사불명
44	느*해	13976**	경남 진주시 대로 239 *****	2/6	폐문부재
45	느*영	경51950**84	경남 진주시 대로 239 *****	2/6	폐문부재
46	느*신	84185**	경남 진주시 대로 239 *****	2/6	폐문부재
47	민*재	79480**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48	민*경	33204**	경남 진주시 청월동 23 *****	2/6	폐문부재
49	민*식	경51950**04	경남 진주시 청월동 23 *****	2/6	폐문부재
50	민*완	08520**	경남 진주시 청월동 23 *****	2/6	폐문부재
51	배*한	56594**	경남 진주시 연제동 606길*****	2/6	수수익인명
52	배*운	80184**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53	배*민(11경기)	경51950**44	경남 진주시 청월동 162번지***	2/6	폐문부재
54</td					

거창군 국내 유일 화강석 ‘컬링스톤’ 생산한다

화강석연구센터 국제 규격화 준비 등 ‘기술 집약형 석재도시’로 주목



거창군 화강석연구센터가 현재 컬링 종목에 사용되는 스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거창군 화강석연구센터는 현재 컬링 종목에 사용되는 스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 ‘기술 집약형 석재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거창군은 “3년 전부터 거창화강석으로 컬링에 사용되는 스톤을 생산해 평창 대관령에 있는 ‘농목장’ 등지에 체험용으로 납품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2007년 ‘화강석 특구’로 지정받아 지역연고자원인 거창화강석을 이용한 석재산업 활성화에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연구개발 등을 통해 석재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왔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꾸준히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며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

한 석산 매장량 평가 기술을 비롯해 컬링 스톤의 국제 규격화 준비에 이르기까지 거창화강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거창군은 컬링 끊나무들과 군민들이 컬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연습장 조성도 검토 중이다.

양동인 군수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컬링 스톤을 국제규격에 맞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스톤으로 경기가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컬링 종목은 16세기부터 영국 귀족들이 즐겼던 스포츠로 1994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책임됐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컬링스톤을 제작하는 곳은 스코틀랜드 ‘케이스(Kays)’사와 캐나다의 ‘컬링스톤 컴퍼니(Curling Stone Company)’ 두 곳뿐이다.

전충만 기자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내달 21일 거제시청서 거제·통영·고성 주민 대상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분야·부패신고 등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제, 통영, 고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비롯한 고령민원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주민들의 고령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한 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상담제도다.

상담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

고, 행정심판,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빙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민·형사를 포함한 법률 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관련분쟁,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상당은 ‘이동 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해결을 위해 내달 7일까지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청 시민고충센터에서 사전상담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행순 기자

“실버 바리스타가 만든 특별한 커피 맛보세요”

창녕군, 군노인복지회관에 실버카페 ‘다락’ 오픈

창녕군은 22일 창녕군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카페 ‘다락(多樂)’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함양군과 카타노시가 농업 중심의 도시로 최근 전 세계적 관심사인 항노화 안티에이징과 2020 함양산한농화엑스포 홍보를 비롯해 양 도시의 공동적인 전설인 서복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22일 우호교류단은 천연기념물 삼립공원을 산책하고, 지역산 인근 마천면의 자연과 관광지 등을 둘러본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함양군은 이번 일본 카타노시 우호교류 단 방문을 계기로 행정적 교류는 물론 문화, 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카타노시는 오사카 내 북동쪽에 위치한 면적 25.55km² 인구 7만5000명의 농촌형 전원도시로 면적의 절반이 산림지대로 포도와 팔기 등 농업 중심으로 소득 수준이 3만5000불 가량이다. 한태수 기자

실버 바리스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 동안 2인 1조로 교대 운영하고 고품질의 커피, 라떼, 전통차 및 과일주스, 와플, 커피콩빵 등을 1000원에서 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원 기자
mymy@newsn.com

합천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위원 위촉

위원장 안명기 보건소장 등 2년간 치매관리사업 수행

합천군은 지난 21일 치매안심센터 기여도 워크숍에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구성해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안명기 합천군 보건소장, 위원에는 합천경찰서 류태하 여성청소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출장소 박선희 소장, 합천군의사회 황경일 회장, 합천군 암사회 김종화 회장, 합천노인전문요양원 허진숙 사무국장,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종대 노인복지계장, 합천군 보건소 하선영 치매안심계장이 협의체 위원으

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합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조력자로서 치매관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자원 연계와 협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치매협의체를 통해 치매 사각지대 밀집과 지원 등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군의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합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철 기자

밀양아리랑마라톤 대비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밀양시는 오는 25일 개최하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2일 다중집합시설(숙박시설 11곳, 대형목욕탕 5곳) 16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전기, 가스 분야 유관기관 및 안전재난관리과, 보건소, 밀양소방서와 협동으로 시행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시설의 주요 구조부의 변형과 구조상 상태,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비상파괴로 등을 점검하고, 전기·소방·가스 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선 배선 상태, 소화기 비자, 기연성물질 방지 여부 및 현장 매뉴얼을 점검했으며 관리주체에게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원 기자

일본 카타노시 우호교류단 함양군 방문

군, 지속적인 교류 통해 양 도시 상생 발전 도모 계획



일본 카타노시 우호교류단이 21일과 22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함양군을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는 관행을 확립한다.

또한 지방선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의 위반, 복무기강 해이와 선거를 평가로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는 등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감찰을 강화한다.

직접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경우는 과감히 불문 처리하는 면책제도 도입, 모범공직자 발굴 등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확대 시행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환기 부군수는 “이번 공직복무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1911@naver.com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공직복무관리 강화

의령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문화 기대”

의령군은 2018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박환기 부군수는 단장으로 하는 공직복무관리 특별 감찰단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 관련 범죄 등으로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별백색화

시천시 공고 제2018-273호

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사천시장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총무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용어정비 (안 제11조제3항)
나. “관련업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팀장”으로 용어정비 (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이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행정정보(개인정보)부록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융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1, FAX : 831-6023)

시천시 공고 제2018-275호

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천시 공고 제2018-275호

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총무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용어정비 (안 제11조제3항)
나. “관련업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팀장”으로 용어정비 (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이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행정정보(개인정보)부록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융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1, FAX : 831-6023)

시천시 공고 제2018-275호

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천시 공고 제2018-275호

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총무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용어정비 (안 제11조제3항)
나. “관련업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팀장”으로 용어정비 (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이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행정정보(개인정보)부록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

의령군, 미래발전 위한 공약사업 발굴 보고회

국도20호선 4차로 확포장 등 23건 발굴 추진중

의령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의령군 미래발전을 위한 공약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 실과소장과 협의부서의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재까지 발굴한 23건의 공약사업과 추가 발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공약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농축산분야, 도시계획·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6개 분야에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대비해 지역발전과 정부 및 경남도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총망라 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공약사업 발굴 T/F팀 구성 이후 발굴된 사업에 대한 첫 번째 회의로서 발굴된 사업이 국정운영방향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농축산, 지역경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박환기 부군수는 "공약사업은 국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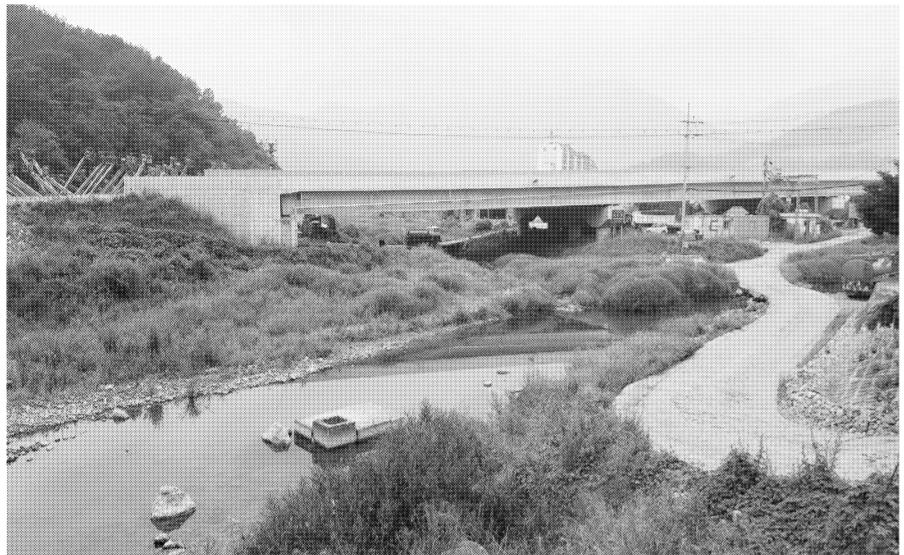
큰틀에서 시각을 넓게 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의령의 미래를 위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약사업 발굴 T/F팀은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발굴된 공약사업에 대한 검증과 보완·개선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진해구 웅동지역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창원시, 하천생태계 복원·수생태계 다양성 확보 목표



진해구 웅동지역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

창원시는 진해구 대장동, 소사동 일대를 흐르는 대장천과 소사천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공자를 선정해 '대장·소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며 21일 밝혔다.

'대장천'은 대장동 대장마을 입구에서 남양동 해안까지, '소사천'은 웅동수원지에서 대장천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이번 공사는 대장천 1.17km와 소사천 1.16km 구간에 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7억 2000만 원, 시비 2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도시화, 산업화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해구 웅동지역 생활권내 생태하천 조성은 녹지·휴식 및 친수·하천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정주여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또 대장천, 소사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 내 자연형 낙차공 개량을 통한 생태통로 확보와 모래톱 및 식생대조성을 통한 깃대종(은어 서식처) 복원 및 꽃창포, 물여새, 매자기, 부들 등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산업화 이후 하천에서 사라진 수생동식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에는 홍수에 대비한 홍수방어벽 설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 등 풍수해 대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치수사업도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천의 수질개선, 수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복원사업 대상지 신규 지정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철 기자

합천교육지원청 건전사학 육성 첫걸음

관내 사립학교 교감·행정실장 14명 대상 협의회 개최

합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립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14명을 대상으로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사립 차별 없는 교육행정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큰 틀에서 전년도 재정결합보조금 예산 시드러난 문제점과 일선 학교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모 사립학교 교감은 "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협의회도 처음이지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

는 방식이 굉장히 과격적이었다"며 "교육지원청의 공·사립 차별 없는 행정지원 방안 모색에 감사를 보내며 학교 내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홍 교육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던 시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학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지켜진다면 교육지원청은 이번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은 산불발생 시 단계별 조치요령과 개인별 임무가 명시돼 있다. 보고부서와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유사 시 초동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면은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고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에게 모의산불상황훈련을 실시해 혹시 모를 산불발생으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거창 주상면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 제작

"산불예찰 활동·홍보 강화해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

거창군 주상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8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과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 자체 매뉴얼은 산불발생 시 단계별 조치요령과 개인별 임무가 명시돼 있다. 보고부서와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유사 시 초동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면은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고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에게 모의산불상황훈련을 실시해 혹시 모를 산불발생으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들별 일제방송을 1일 2회 실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담당마을을 순회하며 산불방지 홍보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상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에서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일제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농부산불을 안전하게 소각하기 위해 소각현장에는 산불진화차량이 대기하며 산불감시원 책임 하에 최종소각을 진행하고 있다.

김근호 면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예찰 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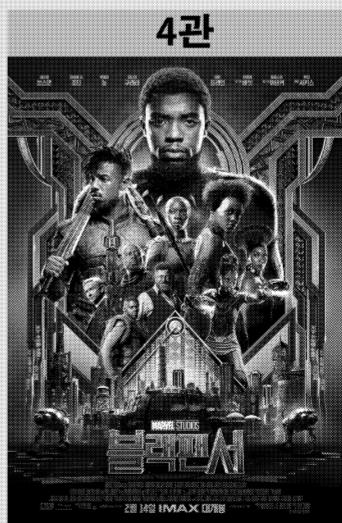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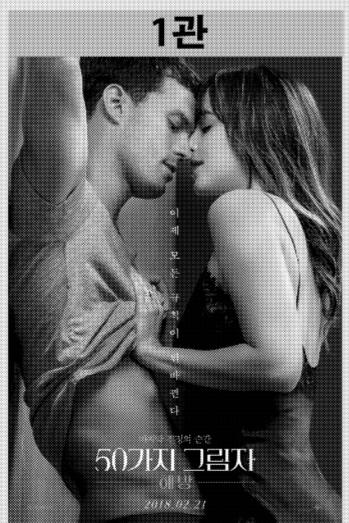
전충만 기자

mymy@newsn.com

롯데시네마

LOTTE CINEMA

1544-8855



상영 시간

01관 50가지 그림자: 해방(디지털)

09:30 11:40 13:50 16:00 18:10 20:20 22:30

02관 골든슬럼버(디지털)

24:25

02관 그것만이 내 세상(디지털)

17:00

02관 패딩턴 2(디지털)

12:15

02관 조선명탐정: 흉혈괴마의 비밀(디지털)

19:25 21:55

02관 코코(디지털)

09:40 14:25

03관 블랙 팬서(디지털)

11:40 14:30 17:20 20:10 23:00

03관 패딩턴 2(디지털)

09:30

04관 블랙 팬서(디지털)

10:30 13:40 16:30 19:20 22:10

05관 조선명탐정: 흉혈괴마의 비밀(디지털)

10:20 12:50 15:20 17:50 20:20 22:50

06관 골든슬럼버(디지털)

09:30 11:45 14:00 16:15 18:30 20:45 23:00

07관 블랙 팬서(디지털)

09:30 12:20 15:10 18:00 20:50 23:40

08관 명탐정 코난·감백의 관(디지털)

10:30 12:45 15:00 17:15 19:30 21:45

08관 골든슬럼버(디지털)

17:15 19:30 21:45

08관 조선명탐정: 흉혈괴마의 비밀(디지털)

24:00

09관 흥부(디지털)

09:50 12:00 14:10 16:20 18:30 20:40 22:50

함양전통문화 '초가지붕' 새 단장

아름지기 함양한옥 이영이기 작업 27·28일 실시



이영이기로 새 단장한 아름지기 함양한옥 목욕채(중앙 건물)

함양군은 선비의 정취가 살아 숨 쉬는 서하 봉전마을에 소재한 아름지기

기, 처마손질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영이기는 짚·억새·산죽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재료 또는 그 지붕을 교체하는 것으로 주로 벽진을 많이 사용 하지만 함양 한옥은 수분 흡수율이 낮아 매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양새를 이용해 지붕을 잇는다.

억새 지붕의 특징은 지붕에 쟁이 두 텁개 쌓여 보온 및 단열의 효과도 높아 예전에는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이번 아름지기 함양한옥의 지붕이기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불거리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래 문화관광과장은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이영이기 전 과정을 활용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영이기 작업을 통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농경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교육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태수 기자

사천시 '전통장류제조사 취득과정' 개강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전통장류제조사 민간자격 취득과정'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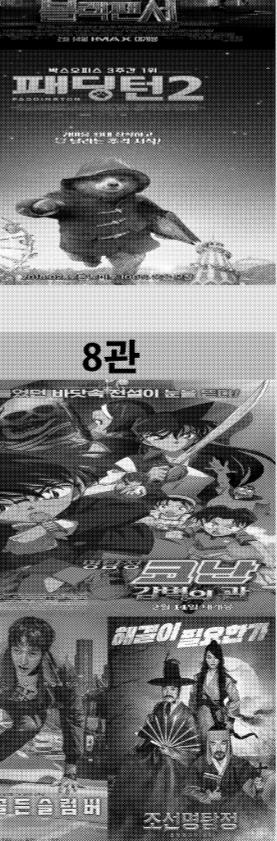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농업인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된장, 신기담찌장 등 전통장류 이론 및 실습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전 일정을 마친 뒤 수료생을 대상으로 장류제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장류제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시는 전통장류 제조사 개람화된 수치를 적용해 일률적인 맛을 낼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통식문화 정립과 함께 전통 발효장류 향토음식자원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종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 자격증을 취득해 6차 산업의 활성화와 전통식품의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최민우 기자



9관

09관 흥부(디지털)

09:50 12:00 14:10 16:20 18:30 20:40 22:50

10관 블랙 팬서(디지털)

18:30 20:40 22:50

11관

창원역사민속관 기획전시 '오색빛깔 조선민화 展'

창원문화재단, 초기 '문자도'·채용신 作 '삼국지연의도' 등 민화 걸작 소개

"오색빛깔 드리운 행복한 삶의 향연, 조선 시대 민화 보러오세요~"

창원문화재단이 내달 13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창원역사민속관 기획전시실에서 '오색빛깔 조선민화 展'을 무료로 연다고 밝혔다.

민화는 조선 시대 긍정의 아이콘이자 민족의 삶과 꿈이 담겨있는 시대의 정서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 시대 가장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선에 담긴 해학과 풍자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민화 대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장 초기 형태를 간직한

'문자도'와 조선 말기 고종의 어진과 불타버린 7대 어진의 복원을 맡았던 어진화사 채용신 作 '삼국지연의도', 미국 책거리 전시회(2017)의 명품 컬렉션으로 선정돼 미국 순회전과 예술의전당에서 공개됐던 '책거리도' 등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 선보이지 않았던 희귀작품 등이 전시돼 세간의 주목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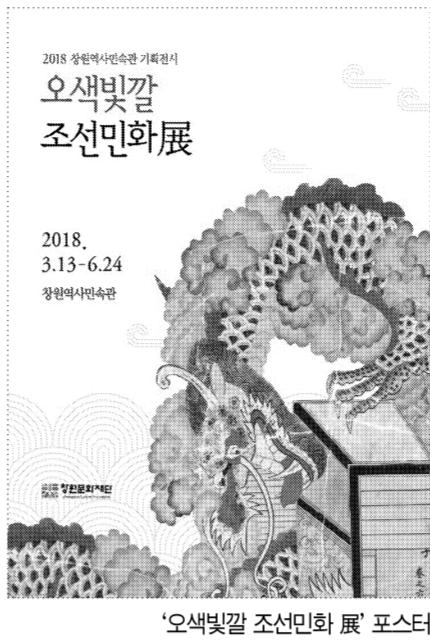
전시는 주제별 종류와 상징에 따라 스화조도, 어해도 등 장식적 성격의 민화 '생활' 스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고사인물도, 설화도가 전시된 '교훈' 스문자도, 책가도 등 선비들에게 학문의 자세를 일깨우는 민

화로 구성된 '학문' 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또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 '민화로 듣는 옛이야기', 주말체험프로그램 '민화 침반 침 만들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민화 패브릭 아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돼, 찾는 이로 해금 민화의 새로운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 민화전문박물관인 조선민화박물관의 분관으로 강진군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보물급 민화 작품 30여 점을 대여해 마련했다.

문화일 기자



'오색빛깔 조선민화 展' 포스터

통영시 무전동, 무술년 정월 지신밟기 풍물놀이 행사 열어

"만복은 이리로,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대유전을 바랍니다"



통영시 무전동은 지난 20일 정월 지신밟기 풍물놀이 행사를 실시했다.

통영시 무전동은 지난 20일 무술년 한 해의 무사태평과 만복을 기원하고, 동민화 힘과 결속을 다짐하는 정월 지신밟기 풍물

놀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신밟기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집터

를 지켜준다는 지킴이 신들을 섭기며, 그

노고를 위로해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과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무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자생단체 회원과 풍물패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고사를 지낸 후 무전동 내 상가 및 주택을 돌며 집안 구석구석 지신을 밟고 풍물을 울리며 축복을 빌었다.

함께한 동민들은 음식을 대접하며 어우러져 "만복은 이리로,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대유전을 바랍니다"를 외치며 지신을 밟아 동민이 화합하는 한자리가 됐다.

김종학 무전동장은 "이번 흥겨운 지신밟기 행사로 동민 모두가 무술년 한 해 희망차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신밟기 풍물놀이 행사로 기획받은 성금은 불우세대 지원, 경로잔치 개회 및 각종 동민화합 행사 지원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갑조 기자

남해군 상반기 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내달 7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문화관광과 방문 신청

남해군은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 상반기 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남해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관소리(초·고급), 색소폰, 서예, 한국무용

(초·중급), 대중가요, 장구, 농악, 드럼 등 총 10개 강좌로 내달 12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강좌별 수강생은 선착순 모집하고 수강료는 무료, 재료비는 별도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 행정

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좌명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10

개 강좌가 마련됐다"며 "이번 강좌는 수강생들이 단지 강좌 수강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해 학습의 강한 동기부여와 지속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김해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다섯 인형극' 행사 개최

국립김해박물관은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짹수 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마다 '다섯 인형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도한 '다섯 인형극'은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올해 '다섯 인형극'은 '배움이 있는 인형극'이라는 대주제로 운영된다.

오는 28일 편식예방 인형극을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0월 31일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을 마지막으로 공연일정을 마무리한다.

첫 작품 '달달마녀와 헨젤과 그레텔'은 편식예방 인형극으로 오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가야누리 1 층 어린이 인형극장에서 진행한다.

예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선착순 90명 예약 (1인 4매까지)을 받았으며, 회원가입은 필수다. 또 공연 당일 가야누리 1층 로비에서는 오후 3시부터 선착순 20명 현장 배부도 실시한다.

인형극이 끝난 후 어린이 인형극장 옆 가야누리 쉼터에서 '다섯 인형극 그림단추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국립김해박물관 관계자는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무료"라며 "인형극 관람은 원활 경우 반드시 누리집·새소식판의 해당 공연 안내 글을 참고하라"고 전했다.

신경범 기자

함안 처녀 뱃사공 전국가요제 신청 접수

내달 24일까지...만 16세 이상 만 60세 미만 참여 가능

함안군은 오는 4월 20일 함안에서 열리는 '제11회 함안 처녀 뱃사공 전국가요제' 참가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가요제는 국민애창곡인 처녀 뱃사공의 발원지 함안의 이미지를 넓힐 알리고 기념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열린다.

가요를 사랑하는 전국 만 16세 이상 (2002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 만 60세 미만(1958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독창이나 중창으로 기성곡, 창작곡 중 선택해 참여 가능하며 창작곡은 가사가 표기된 악보와 음원을 제출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함안지회로 우편 또는 전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일로 신청하면 된다.

예선은 내달 31일 오전 10시, 함안문화 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본선은 '제31회 함안아리문화제' 첫날인 4월 20일 저녁 6시, 함안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본선 결과 대상 500만 원, 금상 400만 원, 은상 300만 원 동상 200만 원, 장려상 150만 원, 인기상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각 1명씩 수여하며, 대상·금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 인정서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함안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강호석 기자



오는 4월 20일 '제11회 함안 처녀 뱃사공 전국가요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가요제 모습

창녕문화예술회관

지역민 문화예술향유 충전소 역할 톡톡히

지난 2012년 11월 개관한 창녕문화예술회관은 지역민과 문화예술 사이의 소통장 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문화예술에 딱맞아 있던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관된 창녕문화예술회관은 496석의 대공연장, 16석의 소공연장, 231.6㎡의 전시실 등을 겸비한 명실상부 문화예술 향유의 충전소이다.

대공연장에서는 기획공연으로 신년음악회, 희 콘서트, 여름 콘서트, 가을 콘서트, 송년음악회, 명품국악 콘서트, 2014년 하우스 콘서트,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연극 라이어 시리즈 3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146건 관객 5만 2289명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갖았다.

전시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와 지역 작가들의 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각종 전시로 2017년까지 49건 7만 1070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영화관이 없어 영화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영화상영은 월 2편 4회 상영과 설·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무료 영화상영까지 총 143 편 287회로 2만 8781명이 관람했다고 군은 밝혔다.

또 공연 무대가 없어 인근 도시로 대관 행사를 치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음악학원 등에도 적은 비용으로 밤표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총 352건의 대관 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도 대학로 명품연극시리즈 3탄과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공연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연, 재즈와 국악공연 등 30여 개의 공연, 5개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공연 개최, 볼거리 있는 전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확대 시행 등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 시겠다"고 말했다.

이계원 기자

엠비씨네:

진주시 가좌동 700-1번지
진주 문화 방송 신사옥 (연암공대 앞)

TEL 771-2540

1관

2관

3관

4관

상영 시간
01관 블랙 팬서(디지털) 10:50 13:40 16:20 19:00 21:40 24:20
02관 블랙 팬서(디지털) 09:50 12:30 15:30 18:10 20:50 23:30
03관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디지털) 09:40 13:50 16:20 18:50 21:20 23:50
03관 반딧불이 딘딘(디지털) 12:05
04관 월요일이 사라졌다(디지털) 10:10 12:35 15:00 19:30 22:00 24:30
04관 지구: 놀라운 하루(디지털) 17:30
05관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디지털) 09:50 12:10 14:30 16:50 19:10 21:30 23:50
06관 골든슬럼버(디지털) 09:30 13:35 15:40 17:50 20:00 22:10 24:20
06관 지구: 놀라운 하루(디지털) 11:40
07관 명탐정 코난: 강벽의 관(디지털) 10:10 12:20 17:30
07관 블랙 팬서(디지털) 14:40 19:40
07관 흥부(디지털) 22:20 24:25
08관 그것만이 내 세상(디지털) 12:30 21:50 24:10
08관 흥부(디지털) 10:20 15:00 19:40
08관 코코(디지털) 17:10

도농기원, 초봄까지 시설하우스 난방 관리 필요

그을음 제거 난방비 효율 높여…온실 내부 난방기 등 화재예방 점검

경남도농기원이 늦겨울 추위가 한창인 지금 시설하우스 작물관리를 위해 초봄까지 온실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 온실의 열 손실 약 70%는 비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온실은 난방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온력을 높이고 틈새를 막아야 한다.

이에 알루미늄 보온스크린이나 부직포, 폴리폼 등을 여러 겹으로 누빈 다겹보온커튼을 사용하면 온실의 보온력을 높일 수 있다.

온실 북쪽 벽면이 다른 벽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손실이 많다. 따라서 보온성

이 좋은 보온재나 빛 반사가 잘되는 알루미늄 피복재를 북쪽 벽면에 설치하는 것도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또한 자주 여닫는 온실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고, 위쪽의 수평커튼과 옆면이 만나는 부분, 지붕에 낸 창과 옆 창문의 틈새를 꼼꼼히 막아 주면 열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난방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버너, 열교환기에 붙어 있는 그을음을 청소해주면 된다. 온풍 난방기를 오래 쓰거나 한파 등으로 자주 가동하다 보면 버너 및 열교환기 등에 그을음이 생긴다.

이는 온풍 난방기의 열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에 이를 에어컴프레서 등으로 제거하면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을음을 제거하면 온풍 난방기의 열효율은 79%에서 83%로 4%가 상승한다.

또한 열 이용 효율은 약 62.9%에서 80.8%로 크게 증가해 약 18%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온실에 설치한 난방기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기에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온실 면적에 알맞은 용량의 난방기를 사용해야 하며, 연통과 배관을 접하는 부분은 차단 피복재를 사용해야 한다.

난방기의 기름 배관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또는 고무호스보다는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전반 내부의 면자는 에어컴프레서나 세정액으로 청소하고, 낡은 전기시설의 점검과 교체, 절연테이핑, 접지, 너트 조임 상태 등도 점검한다.

물론 비상시를 대비해 주변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도농기원 하우스 지도사는 “지난 겨울 한파에 이어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 시설원에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되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온실과 난방기 등을 관리하면 난방비 절감과 함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mymy@newsgrn.com

BNK경은 '자산관리전문가 영업력 강화 워크숍'

WM 91명 참석…부동산 P2P연계펀드 심도 있게 논의



BNK경남은행이 WM(Wealth Manager, 자산관리전문가) 영업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1일 자산 관리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고객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WM(Wealth Manager, 자산관리전문가) 영업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

농식품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식품분야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속적 투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은 지속 성장에도 그 기반이 영세한 식품기업 경쟁력이 원천이라 할 수 있는 R&D 투자가 저조해 식품기업의 수익성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식품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업계 및 관련 단체의 기술수요를 검토해 공공성이 높으면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원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한 8개 지정공모과제와 개별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창의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성

과를 높이고, 수행기관의 원활한 R&D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

△일자리 중심 경제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평가지표에 추가 △연구결과물의 실수요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신청자격을 설립 1년 이상, 식품 관련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명확화 △네트워크 형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기업 간 공동연구 우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연구비 부담 기준 최소 수준 적용 △사업화 성공 가능

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 기술사업화 전문가 포함, 사전경쟁성분석 의무 실시 △선정된 과제에 대해 FD(Family Doctor) 지정, 연구진 역량진단 및 연구 진행 방법 타당성 등 점검해 연구 초기 단계 서부터 성공적 진행 지원 등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식품R&D에서 추진한 과제 대부분이 기존 연구 관행을蹈하는 경향으로 혁신성이 다소 부족했다”며 “이번부터는 생선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수입 대체효과가 큰 기술 등 보다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해 식품R&D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재 기자

한국공정육묘연구회, 경상대서 현장토론회 열어



한국공정육묘연구회는 지난 21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정병룡 교수가 '묘소질 향상을 위한 보광기술 적용', 농업식물과학과 황승재 교수가 '묘소질 향상을 위한 생육조절 기술 적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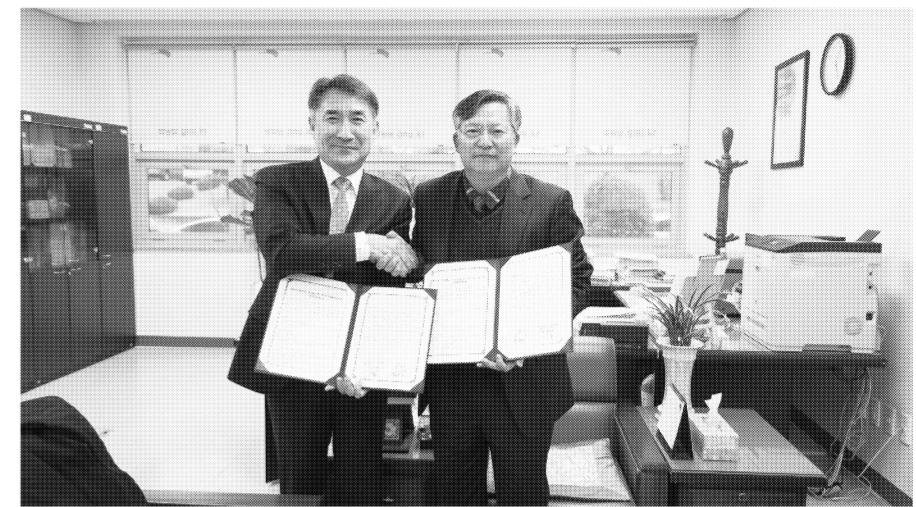
이날 현장토론회는 경상대학교 대학원으로 지정된 한국공정육묘연구회는 육묘 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교육시스템 구축, 육묘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공정묘 품질 향상과 육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월우 기자

경상대 산학협력단

(주)DA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와 협약

공동교육 및 연구기술 개발…지역 산업발전 도모



정종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주)DA그룹 조원준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DA 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교육 및 연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학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1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종일 단장, 강석진 산학부단장 등 대학 관계자와 (주)DA그룹 조원준 사장, 최승원 전무, 문경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교육 및 현장실습 △연구 기술 개발 △기타 협력이 가능

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주관한 강석진 산학부 단장은 “서울에 소재한 DA그룹은 국내 최상위권 종합건축사사무소로서 다양한 설계작품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혁신 도시 이전기관인 LH 업무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학협력 활성화에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mymy@newsgrn.com

진주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업 맞춤형 IP 지원 및 제품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경영의 초석이 될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등록 진주지식재산센터는 매년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맞춤형 IP지원(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디자인 랩, 특허기술 홍보 동영상), 지역특화산업 IP 전략지원(국내 및 해외권리화, 융복합 제품개발, 홈페이지(반응형), 시제품제작, IP사업계획서)'의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융복합 제품개발, 홈페이지(반응형), IP사업 계획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와 일반 민원인을 위해 지재권 상담(공의변리사 무료변리상담 포함), 1C-IP(1회사-1전문가) 멘토링 사업 등도 연중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연중 수시 모집, 사업비 소진 시까지)은 대상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데 진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RI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정욱 기자

좋은데이나눔재단 희망 장학생 간담회 가져

무학그룹 성실 공익법인 좋은데이나눔재단이 2011년부터 시작한 '좋은데이 희망 장학생'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3명의 좋은데이 희망 장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선발된 24명 모두가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했다.

지난 20일 무학그룹 좋은데이나눔재단은 청원 무학 본사에서 좋은데이 희망 장학생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과 이수능 무학 지원부문장, 문영래, 권기재 좋은데이나눔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해 대학으로 진학하는 장학생과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노트북을, 사회로 진출하는 장학생에게는 정장을 각각 선물로 전달했다. 현재 2명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등 수도권 및 지방 거점 대학으로 진학한 상황이다.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은 “선발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엿한 가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지금까지 힘들림 없이 바르게 성장한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주역이 돼라”고 격려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의 좋은데이 희망 장학생 프로그램은 학생 1명 당 매달 50만 원씩 최장 10년간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지원한다.

장기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올해로 8년 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경남에서 최초 10명 선발 후 2012년 부산에서 10명, 울산에서 5명 총 2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교재구입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을 후원했다. 단순히 일회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후원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이 희망 장학생 프로그램의 핵심 취지다.

좋은데이 희망 장학생들은 멘토와 재단 본부장의 월 1회 간담회와 문화공연 관람, 재단의 봉사활동 참여 등을 하면서 심적 안정과 학업의욕 고취를 통해 진로 결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봤다. 또 희망 장학생 중 일부는 최근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 인재로 자라나고 있다. 전병철 기자

합천군 쌍백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개최

합천군 쌍백면은 22일 쌍백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쌍백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34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농교류센터, 소재지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정상호 쌍백면장, 정수복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쌍백권역 창조적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수렴과 주요 안건토의 등 권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정상호 쌍백면장은 “쌍백면은 향우회가 활성화돼 있어 쌍백중학교 부지에 도·농교류센터 조성 시 도시민 유치와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로 쌍백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병철 기자

경남교육청 '파이의 날' 전국 최초 수학문화관 개관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수학에 주목하는 이유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4일 파이(π)의 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학문화관을 개관한다.

경남교육청의 선진적인 수학교육 활동은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학체험센터 또는 문화관 신설과 구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 왜 지금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싫어하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일까?

국회는 2017년 10월 24일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공포해 오는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학교육 진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6년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영향이 크다.

당시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규정하고, 산업화 시대의 직업 대부분이 사라지며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

지 신구 일자리 200만개 중 수학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는 41만개로 전망치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직업 전문 사이트인 커리어캐스트가 2017년 발표한 미래 유망직종 top 10이다. 2017년 미국인들의 선호직종은 미래유망 직종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미래에 없어질 위험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상황이 지속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프랑스는 수학적 사고방식을 일반교양으로 보고, 훈련을 통한 논리적 표현과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NCTM(전미수학교사협의회)은 2000년 이후 '수학적 힘'을 통해 실생활과 연관된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수학교육의 근간으로 인식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2020년까지 전통적인 수업과정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능력, 협력역량을 함양하는 융합기반의 주제접근 방

법으로 수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나라이 공통점은 계산을 중심으로 둔 문제풀이 학습에서 생활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을 통해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수학은 자연 현상과 사물, 인간의 활동에서 질서와 규칙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논리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칙연산 (+,-,×,÷) 외에 정의, 추론, 논증, 분석 등 논리적·추상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는 학문으로 새롭게 인식되어 한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는 21세기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역량(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 등)의 자발적 학습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학문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무미건조한 기존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 하에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현실적 맥락(수학의 동기부여)으로부터 수학하는 활동을 즐기고, 수학적 내용을 재발명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계산위주의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선 수학문화관은 어렵고 힘든 기준의 수학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수학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곳으로, 기준의 칠관 중심의 설명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학교육 활동과 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면서 지식을 확장·창조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는 경남수학문화관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체험·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고 유익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학생·시민 모두 삶에 유익하고 유용한 미래지향적 선진 수학과 수학교육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으로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수학문화 소통을 위한 기관으로서 도민의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문재일 기자

경남과기대, 2017 전기 학위수여식 가져



경남과기대 김남경 총장이 학위증서를 전달하고 졸업생을 격려하고 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2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사 6명, 석사 91명, 학사 1002명 등 총 109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은 문홍득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김남경 총장의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이창희 진주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

됐다. 김남경 총장은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의 앞길에 실패도 좌절도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잊지 않고 늘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김남경 총장을 비롯해 졸업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및 내·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였다.

유용식 기자

창원대 오늘 2017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창원대학교는 23일 대학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석사, 박사 통합 학위수여식으로 거행되며, 학사 1568명, 석사 158명, 박사 48명이 각각 학위를 받게 된다.

학위수여식은 최해범 총장을 비롯해 보직자와 교직원 및 학생, 학위수여 대상자, 학부모, 총동창회, 발전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과 국민의례 연혁보고, 총장 고사(告辭), 내빈 축사, 학위수여 및 시상, 고제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병칠 기자

통영교육지원청 예비학부모대학 운영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3층 대회 의실에서 예비학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알쓸신초'라는 주제로 예비학부모대학을 운영했다.

'알쓸신초'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의 줄임말로 예비학부모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청탁금지법' 안내를 첫 순서로 시작해 '두근두근 1학년 학부모 되기'와 '1학년 자녀와의 소통법'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두근두근 1학년 학부모 되기' 강의는 호암초 김선임 수석교사가 1학년 교육과정

과 1학년 학교생활, 급식,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그 외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와 소통하며 자세하게 안내했으며, 이 어진 '1학년 자녀와의 소통법' 강의에서는 예비학부모이기도 한 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의 박주영 상담교사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예비학부모는 "아이를 1학년에 입학시키려고 하니 걱정도 많이 되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좋은 내용을 알려줘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갑조 기자

진주아카데미 올해 제1기 프로그램 개강

영어회화·자기주도학습·학부모 프로그램 등 700여 명 수강

진주시(진주아카데미)는 22일부터 창

의사고력·초등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8년 제1기 프로그램을 일제히 개강한

다.

진주아카데미 제1기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어회화 프로그램, 팝송, 영화, 뉴스 등 다양한 소재로 영어를 학습하는 영어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논리사고력,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자녀와의 소통법을 배우고 학부모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학부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각 프로그램별 8주에서 16주의 과정으로



함양군이 관내 초등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초등 입학 앞둔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 교육

함양군, 다문화가족 30명 참석 자녀교육 궁금증 해소

함양군은 지난 20일 오후 7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서 관내 초등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예비학부모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학부모의 자녀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교육 준비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초등예비학부모 교실'에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가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정우 수동초등학교 교사는 '두근 두근! 우리아이 행복한 학교 생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1학년 아이의 특성, 바르고 건강한 생활습관,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 교과 및 독서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줬다.

노정우 교사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

랑받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적응하고 학업을 잘 이어가므로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을 들은 나파사(32·함양읍·우즈베키스탄)씨는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우리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관내 307세대 11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군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상담, 방문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 가족왕래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태수 기자

mymy@newsgr.com

도내 유명 업체

건설가설자재

유로풀·씨포드·비케마이프·독재·암반·안전기설재·중고판매·금암·임대·보관·수리
전주영업소 (055)762-0230

르노삼성자동차
진주 평거 / 칠암 대리점

Tel. 055-757-3330
Fax. 055-757-3588
Mobile. 010-4224-4758
daewoong.eum@renaultsamsungM.com

주식회사 무창
무창산업 주식회사

골재 생산 * 판매
정직·신속하고 정확한 출하
레미콘 몰탈 제조 및 판매

대표전화 055) 974-6666
팩스번호 055) 974-5544

경상남도 산청군 신동면 상능로 504번길 36-13

동현건설
가족회사 : 이호건설(주) / 디에이치건설(주)

Build up Your Hope!

대표전화 055-747-4233
팩스번호 055-747-5912

52697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80 동현B/D 5층

'세계 속의 합천 이룩하기 위한 역할 강화' 다짐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가 하창환 군수를 비롯한 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창환 군수를 비롯한 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류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지난해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는 제16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일본 자매도시인 미토요시 방문단을 초청했으며, 미국 버겐카운티 어학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중학생 일본 문화체험 등 체육,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국제교류를 추진해 합천군을 세계에 홍보했다.

윤중복 국제교류협의회장은 "지난해 국제교류협의회의 활동이 어느 해보다 왕성한 한해였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속의 합천을 이룩하기 위해 국제교

류협의회에 대한 위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창환 군수는 "군의 큰 행사에 해외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해 열정적으로 군 홍보에 매진해 준 위원들께 친사를 보낸다"며 "군이 세계 속의 당당한 자자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철 기자

하동署, 절도범 검거한 시민에 감사장



하동경찰서는 지난 21일 경찰서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순회하면서 빙집 등에서 금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감사장을 수여받은 진교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절도범이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 절도 행각 중인 것을 발견해 도주하는 것을 주격 검거한 후 경찰관에게 인계,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정석모 서장은 이날 "하동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써 군민과 하동경찰서를 대표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시민영웅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석 기자

거제 나다운 정기총회 및 이·취임 행사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이·취임 행사를 개최했다.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명예본부장인 권민호 거제시장과 고문인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 김주수 거제경찰서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입·지출 결산 및 감사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도 있었다.

강행준 기자

mymy@newsgn.com

양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22일 민·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연대 운영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역연대 운영위원 중 위원장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17 사업실적 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2010년 양산시 아동여성인권연대로 구성된 이후 마을지킴이사업, 아동안전지도제작, 폭력예방교육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구정 기자

송영복 기자

진주 미천면 무장애,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무장애도시 진주미천면위원회는 지난 21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편의설비, 전자제품, 가구 등이 갖춰진 무장애 견본주택 견학 및 체험을 했으며, 장애 발생 원인과 예방, 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훈체어를 타고, 안대로 눈을 가린 후 지팡이로 땅을 짚어 거리로 나가는 장애에 몸소 체험했다.

직접 장애를 체험해 본 황창근 위원장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았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구정 기자

준법센터, 복학·검정고시 등 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창원교육청, 진해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강사를 초청해 학교 밖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했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2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절차와 직업훈련에 대해 안내하고 장래 비전과 꿈을 가지도록 독려했다.

한편 설천중앙노인대학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설립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박도영 기자

창녕 농업기계 순회안전교육 실시



창녕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농업기계 순회안전 교육반을 편성해 22일 창녕읍 외부마을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안전 교육에 나섰다.

이번 농업기계 순회안전교육에서는 연중 사용화수가 많은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등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정비교육을 실시해 농업기계 내구 연장과 3만 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지원으로 농가경쟁비 절감 등 농업기계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계원 기자

거창 가조면, 산불대응 능력 강화 교육 실시

산불신고 접수 시 전파요령, 개인별 행동매뉴얼 등

거창군 가조면은 산불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2일 가조면 산불감시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장비 사용법과 산불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증가해 비상 시

면을 만들기 위해 합심해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은 "갑자기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당황하기 쉬운데 이번 교육을 듣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실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용 면장은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들이 총력을 다해 산불제로의 안전한 가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면을 만들기 위해 합심해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용 면장은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들이 총력을 다해 산불제로의 안전한 가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성군교육발전위 정기총회·장학금 전달식

대입성적 우수생 등 309명에 장학금 1억3600만 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 김오현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이사, 감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2018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정관 개정안, 2019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발전기금 1000

만 원 이상 기탁자인 조경문 고성군민상동우회장 등 8명에게 골든페스(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올해 대입성적 우수생 및 우수대학 입학생 21명, 고등학교 입학 성적우수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생 42명, 예·체·기·농·문화등 재능장학생 139명, 항공산업인력육성 장학생 7명, 저소득층·다자녀·다문화가정 학생 등 총 309명 학생에게 장학금 1억3600만 원을 전달했다.

문거성 기자

함안소방서는 22일 소명요양병원을 방문해 소방서 직원과 자원소방대 30여 명이 참석해 소방안전 지도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 도착해 차량의 부서위치를 선점하는 훈련과 함께 요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어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인들의 책임 의식 함양과 소방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쟁탈 담당자를 지정한 환자 대피훈련,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 재정비 등을 실시했다.

강호석 기자

사천시지사협 아동청소년분과 ‘명랑운동회’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가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명과 청소년명랑운동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7개 센터 아동과 ‘꿈꾸GO, 놀GO, 웃GO’ 주제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는 지난 20일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강당에서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명과 함께 ‘꿈꾸Go 놀GO 웃Go’라는 주제로 청소년명랑운동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청소년분과 위원들이 속한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

을 통해 학년별로 나눠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아존중감 향상 교육을 고학년은 speed 성교육과 진로발달 검사를, 중·고등학생은 지원봉사 이해 교육을 가진 후 신체놀이 활동인 청소년명랑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꿈꾸Go 놀GO 웃Go’는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 아동청소년분과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성교육, 진로발달검사 등 지원으로 정서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명랑운동회를 통해 신체발달과 팀워크 및 공동의 목표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준 아동청소년분과장은 “아동청소년분과는 청소년관련기관·시설·단체 종사자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수 기자



농협 하동지부·농가주부모임 사랑나눔 실천

농협 하동군지부와 농가주부모임 하동군연합회는 지난 21일 농협 군지부 대회의실에서 농가주부모임 군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행사 중 관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농협 군지부가 조성한 700만 원과 농가주부모임 군연합회가 사랑나눔바자회 등을 통해 조성한 3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운상기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명석 기자



진주 좋은세상 사봉면협, 독거노인 지원

진주시 좋은세상 사봉면협의회에서는 지난 21일 무장에도시사봉면위원회와 연계해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가구에 LED 리모컨 전등을 설치했다.

LED리모컨 전등은 리모컨 하나로 집안의 등을 자유롭게 켜고 끄는 것은 물론 밝기까지 조절이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수혜자인 한 할머니는 “았았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선물을 받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구정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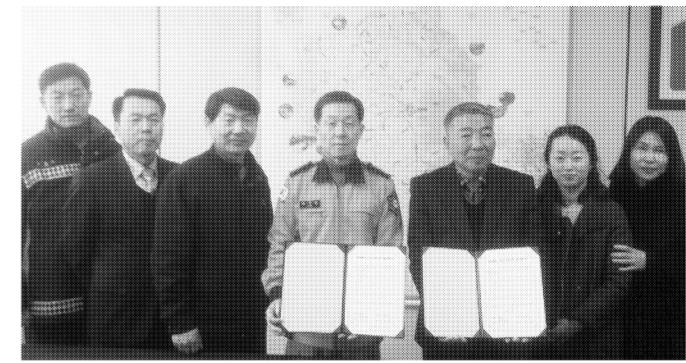


제2기 옥포2동 제2기 지사협 위원 위촉식

거제시 옥포2동은 지난 21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기 동지사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정병구 위원(전 옥포2동주민자치위원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옥포2동지사협의체는 지난 2016년 구성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지원 발굴 등 다양한 특수사업을 수행해 왔다.

강맹순 기자



창녕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MOU 체결

창녕군은 지난 21일 창녕경찰서 및 창녕소방서와 군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사고 없는 건강한 창녕을 만들고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정신질환 및 자살고위험군의 위기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해 긴급 구조 및 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응급대처, 입·퇴원 후 사례관리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계원 기자



남해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운전원 연수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관내 운전직 공무원 및 업무관련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2018 통학차량 운전원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 연수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대형버스)을 방문해 자동차 제작과정 견학으로 통학차량의 구조와 특징 파악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관내 운전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 시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도영 기자



함안 가야읍 ‘깨끗한 가야읍 만들기’ 활동

함안군 가야읍은 22일 설 연휴 동안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가야읍 만들기를 위해 시가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가야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7개 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여해 3개 조로 나눠 시가지 정화활동에 땀을 흘렸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내 집 앞부터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강호석 기자

게시판

- 개입 ◇ 푸르지오공인증개사(김성결)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58 제일문창 교회 옆 ☎ 243-8249
- ◇ MS배터리총판(김민석)
-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8 서원 곳입구 ☎ 010-2420-0072
- ◇ 장모님치킨 창녕대지점
-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65-1 ☎ 533-9298
- ◇ 백이비인후과의원(백운희)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7 남부시 네마타운 3층 301호 ☎ 224-0911
- ◇ 청년다방 진해 자운점(대표 김수민)
- 창원시 진해구 자운동 135-1 ☎ 544-5455
- ◇ 두배로식육식당 왕길비탕, 돼지국밥

- 점문점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영신APT 상가 ☎ 525-0199
- ◇ 다이어결혼증개사무소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12-1 ☎ 010-9453-2583
- ◇ 미산새마을금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동 2길5 ☎ 296-7011
- ◇ 내비블랙박스할인매장(강 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459-11 중리역 앞 ☎ 231-6661
- ◇ 구구비단(장어구이·향어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0-10 가족보건 의원 맞은편 ☎ 261-4794
- ◇ JK스마트폰 Mobile(김모성) 창원시 진해구 석동 90-3 석동주공상가 ☎ 551-5016
- ◇ 금신인삼(김석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길 51-1 중앙시장 옆 ☎ 010-9462-1962
- ◇ 미래한의원(최신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5-12 최내과 2층 ☎ 248-8017
- ◇ 제리쉬미산점(정성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29-2 놀이터사우나 앞 ☎ 221-1179
- ◇ MTA태권도(강명신)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51-1 정우빌딩 2층 ☎ 546-0547
- ◇ 성산비단회집(박삼식) 함안군 군북면 중암4길 59-1 ☎ 585-0077, 010-3873-5865
- ◇ 친환경 건축자재 탄화코르크 박화점(대표 삼미화)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64-1 ☎ 261-4842
- ◇ 기마술 엿날시골통닭(대표 한미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10-1 ☎ 242-9292
- ◇ 플러스 식육식당 창원 진해구 속천동 6-3 ☎ 551-6633

시미골 지하 225미터 깊은 술 막걸리

생 막걸리

진주 탁주 공동운영회 055 745-0211~2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

진주 시민버스·삼성교통을 이용합니다

**이간과 자연을 위한 건설
환경친화적인 시공**

(주)중원종합건설

남자 팀추월 2회 연속 은메달…女 컬링, 4강서 한일전

피겨 최다빈, 개인 최고점…8위로 프리 진출

남자 팀추월 대표팀이 지난 21일 올림픽 2회 연속 은메달을 수확했다. 전날 4강 진출을 확정지은 여자 컬링은 마지막 2경기도 깊숙하게 잡고 조 1위로 4강에 올라 일본과 맞붙게 됐다.

피겨 스케이팅의 최다빈은 개인 최고점 기록을 다시금 경신하며 8위로 프리스케이팅에 나서게 됐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여자 팀추월은 7-8위전에서 패해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팀추월 대표팀은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결승에서 3분38초52를 기록, 3분37초32의 노르웨이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014 소치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이다.

한국의 맏형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대회(금1은1), 2014 소치 대회(은1)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개인 통산 네 번째 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올림픽 최

수), 덴마크를 잇달아 꺾고 8승1패, 조 1위를 확정지었다.

한국은 23일 열리는 준결승에서 4위 일본(5승3패)과 격돌한다. 일본은 한국이 예선에서 유일하게 패했던 팀으로, 설욕전에 나서게 됐다. 4강에서 이길 경우 스웨덴-영국 승자와 금메달을 다룬다.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된 남자 컬링 대표팀은 풀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10-4로 꺾고 4승5패(7위)로 대회를 마쳤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최다빈은 쇼트프로그램에서 67.77점(기술점수 37.54점 + 예술점수 30.23점)을 받았다.

이날 클린 연기를 펼친 최다빈은 지난 팀이벤트 쇼트프로그램에서 얻은 개인 최고점(65.73점)을 2.04점 높이며 8위에 올라 프리 진출을 확정했다.

최다빈의 점수는 김연아를 제외한 역대 최고 성적이다. 과거 2010 밴쿠버 대회에서 과민정이 프리 16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4 소치에서는 김해진이 18위, 박소연이 23위를 기록했다.

함께 출전한 김하늘도 프리 진출에 성공했다. 김하늘은 두 차례 점프에서 언더 로테(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으면서 54.33점(기술점수 29.41점 + 예술점수 24.92점)



대한민국 남자 팀추월 대표팀 정재원(왼쪽부터), 김민석, 이승훈이 21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후 시상대에 올라 손을 들고 있다. (뉴스1 제공)

을 받았다.

개인 최고기록(61.15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0명 중 21위를 마크하면서 컷을 통과했다.

여자 봅슬레이 2인승 김민성-김유란조는 3, 4차례스까지 마쳐 최종합계 3분25

초31을 기록해 20개 팀 중 15위로 대회를 마쳤다.

스노보드 빅에어 예선전에 나선 이민식은 18명 중 14위에 머물러 상위 6명에게 주어지는 결선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용식 기자

‘황제’ 크라머가 바라본 ‘여제’ 이상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빙속 황제’ 스벤 크라머(32)가 ‘빙속 여제’ 이상화(29)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크라머는 22일 강릉 라카이珊드리조트의 필라 글로벌 리운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상화는 500m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이상화의 실력을 인정했다.

크라머는 지난 1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크라머는 2010 밴쿠버 올림픽 5000m 우승에 이어 남자 선수 최초로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단일 종목 3연패를 이룬 주인공이 됐다.

이상화도 크라머 뜻지 않은 재능을 자랑한다. 밴쿠버 대회 여자 500m, 소치 대회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는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여자 500m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크라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상화는)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커질 것”이라고 이상화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했다.

권원재 기자

양산시,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위 발대식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낙동강시대 중심도시 양산서

양산시는 내달 25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3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유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위원회 770여 명의 위원과 체육동호인, 일반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추진상황 보고,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을 하는 등 성대히 열린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 12일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의 전초전으로 낙동강시대 중심도시 양산이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치의지 결의다짐과 더불어 전국체육대회 유치 불조성과 시민의 참여 및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개최된다.

지역 국회의원, 도 및 시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체육회 임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위원회 770여 명의 위원과 체육동호인, 일반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추진상황 보고,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을 하는 등 성대히 열린다.

송영복 기자

서부경남 5개 시·군 궁도대회 열려



제446회 서부경남 5개 시·군 10개정 친선궁도대회가 22일 진주시 덕수정에서 개최됐다.

진주시 덕수정서 첫번째 막 올라

진주시궁도협회 덕수정이 주최·주관하고 진주시와 서부경남 9개 정이 후원하는 ‘제446회 서부경남 5개 시·군 10개정 친선궁도대회’가 22일 250여 명의 선수와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개인전 1, 2, 3등과 단체전 1, 2, 3등에게 각각 시상이 이뤄졌다.

진주 수곡면 소재의 덕수정에서 개최된 이번 궁도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창립정, 와룡정, 관덕정, 금해정, 열무정, 남강정, 랍덕정, 철성정이 차례로 대회를 이어나가며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 예정이다.

지난 1965년 5월 사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53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번 대회는 진주(덕수정, 창립정, 남강정, 랍덕정, 영봉정), 사천(관덕정, 와룡정), 통영(열무정), 고성(철성정), 남해(금해정) 5개 시·군의 10개정이 소속돼 1월, 8월,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순회하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용식 기자
mymy@newsgn.com

제2회 남해군협회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24일 13개 클럽 120여 명 참가

사각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탁구동호인 학습의 장, 제2회 남해군협회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오는 24일 남해군생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남해군탁구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남해

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군내 13개 클럽팀,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오전 10시부터 단체전(5단2복)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공로패(미조클럽 정형규)와 감사패(워너스클럽 박길자)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박도영 기자

3년 만에 1부리그 뛰는 경남FC, 승리 다짐 출정식

“도민들에 경남의 저력을 보여주자” 비장의 각오

경남FC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시즌 경남FC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비장의 각오를 다졌다. (경남FC 제공)

상석 경남축구협회장이 자리를 빛내줬고, 도민을 대표해서 양성구 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 고문, 장기팔 수국 전형우 장학재단 이사 이자 창원FC 60대 감독, 옥주영 경남로봇고 주장이 참석했다.

한경호 구단주는 인사말에서 “올해 K리그(클래스)에서도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남FC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시즌 경남FC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비장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3년 만에 1부리그에서 뛰는 만큼 올해를 ‘경남FC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구 지변을 위해 도에서 많은 노력과 기울일 테니, 선수들도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덕 부의장은 격려 말에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는 경남FC가 약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 멤버와 새로운 멤버와의 시너지가 좋을 것으로 보

고 있어, 올 시즌의 슬로건인 ‘Do it 2018 Go Up 경남’처럼 할 수 있다는 저력과 한 단계 성장하는 경남FC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매 경기 승전보를 울려달라는 의미로 선수단 이름이 새겨진 승리엽원페(정)를 수여했으며, 김종부 감독은 현장에서 크게 징을 3번 울리며 첫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주장 배기종에게는 선수단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리며 주장 완장을 어깨에 채워줬고, 이에 매킹 선수가 선수단의 을 시즌 각오가 담긴 사인볼을 한경호 구단주에게 전달했다.

문재일 기자

경남FC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시즌 경남FC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비장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3년 만에 1부리그에서 뛰는 만큼 올해를 ‘경남FC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구 지변을 위해 도에서 많은 노력과 기울일 테니, 선수들도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덕 부의장은 격려 말에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는 경남FC가 약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 멤버와 새로운 멤버와의 시너지가 좋을 것으로 보

고 있어, 올 시즌의 슬로건인 ‘Do it 2018 Go Up 경남’처럼 할 수 있다는 저력과 한 단계 성장하는 경남FC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매 경기 승전보를 울려달라는 의미로 선수단 이름이 새겨진 승리엽원페(정)를 수여했으며, 김종부 감독은 현장에서 크게 징을 3번 울리며 첫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주장 배기종에게는 선수단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리며 주장 완장을 어깨에 채워줬고, 이에 매킹 선수가 선수단의 을 시즌 각오가 담긴 사인볼을 한경호 구단주에게 전달했다.

문재일 기자

경남FC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시즌 경남FC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비장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3년 만에 1부리그에서 뛰는 만큼 올해를 ‘경남FC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구 지변을 위해 도에서 많은 노력과 기울일 테니, 선수들도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덕 부의장은 격려 말에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는 경남FC가 약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 멤버와 새로운 멤버와의 시너지가 좋을 것으로 보

고 있어, 올 시즌의 슬로건인 ‘Do it 2018 Go Up 경남’처럼 할 수 있다는 저력과 한 단계 성장하는 경남FC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매 경기 승전보를 울려달라는 의미로 선수단 이름이 새겨진 승리엽원페(정)를 수여했으며, 김종부 감독은 현장에서 크게 징을 3번 울리며 첫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주장 배기종에게는 선수단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리며 주장 완장을 어깨에 채워줬고, 이에 매킹 선수가 선수단의 을 시즌 각오가 담긴 사인볼을 한경호 구단주에게 전달했다.

문재일 기자

경남FC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시즌 경남FC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비장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3년 만에 1부리그에서 뛰는 만큼 올해를 ‘경남FC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구 지변을 위해 도에서 많은 노력과 기울일 테니, 선수들도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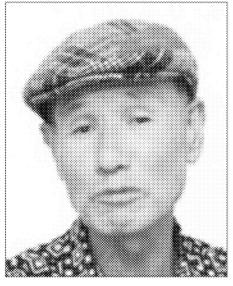
최진덕 부의장은 격려 말에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는 경남FC가 약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 멤버와 새로운 멤버와의 시너지가 좋을 것으로 보

고 있어, 올 시즌의 슬로건인 ‘Do it 2018 Go Up 경남’처럼 할 수 있다는 저력과 한 단계 성장하는 경남FC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매 경기 승전보를 울려달라는 의미로 선수단 이름이 새겨진 승리엽원페(정)를 수여했으며, 김종부 감독은 현장에서 크게 징을 3번 울리며 첫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주장 배기종에게는 선수단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리며 주장 완장을 어깨에 채워줬고, 이에 매킹 선수가 선수단의 을 시즌 각오가 담긴 사인볼을 한경호 구단

권우상 금요단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몇 나라에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모양이다.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또는 퀘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한국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등을 돌리자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사회주의」, 「반미정권」, 「독자적 해외에너지 개발」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국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부는 미국 패권주의 3원칙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시베리아 *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고,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고, *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부산에 도착할 때 좌파 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 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 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를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월버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

사회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국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 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퀘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 특정 국가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 특정 국가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올해 초 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미국 「유진 유」 공화당 하원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 바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면 차가 없이 쳐 낸다. 문제는 이런 것을 한국 좌파 정부가 너무나 쉽게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 정치와 깊숙한 커넥션이 있다

면 북쪽 등 북한을 대하는 정보 파악이 수월하겠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미동맹은 사실상 와해됐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탈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세계 1위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경제를 탈취하는 셈이다. 한국은 손님을 왕이라고 한다. 미국이 한국의 물건을 팔아주니 왕이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들은 미국을 왕이 아닌 적으로 본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국방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좌파들은 반대하면서도 북한에는 돈을 퍼주려고 안달이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도 문재인 좌파 정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정부가 미국의 패권주의 3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PINION

○팩스 744-2306

전자우편 mymy@newsgn.com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기고



현동동 미산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혼내야 하는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 아동의 상당수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47 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과 비교해 18.7%(1675건) 급증했으며, 가해자의 경우, 부모인 경우가 7634 건(71.7%)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서현이 사건 등을 계기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인식도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훈육이라는 명 아래 학대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이런데도 과연 「사랑의 매」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면 부모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최근 개인주의의 급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애정을 품기보다는 부모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거나 경제적·정신적으로 부모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충족되지 못한 분노를 자녀에게 퍼풀이하게 됐다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했을 뿐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폭력이 부모의 훈육이 개인의 가정사로 취급하고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 뿐이다.

자기가 넣었다고 해서 자녀를 마

음대로 할 수는 없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자가 돼야 한다. 올바르고 진실된 표현만이 아동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호 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모호한 법도 하루빨리 정비가 되길 기대해 본다.

천황식당

100년 전통 진주 빵집 대표전화 055-741-2646 경남 진주시 촉석로 207번길 3

진주학통음식점 1945년 하연옥 70년 전통의 어머니의 손맛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예/약/안/내 055-741-0525

“하연옥 냉면”에는 질 좋은 제주시 “흑메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숯불갈비 전문점

담소원

고기와 정식이 맛있는 집

숯불갈비 전문점

경남 진주시 계동123번지 예약문의: 055-742-6396

여론 & 해설

사설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 침체 돌파구 마련 시급하다

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유가 변동성을 우려한 정부가 사업주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부진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의 경제지표는 갑상록 악화되고 있고 서민들 삶은 괴팍해지고 있다.

창원산단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 제조업을 그만두고 전혀 무관한 분야로 눈을 돌리거나 공장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곳도 적지 않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남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대내·외적 경제 영향이 지속될 경우 모든 제조업종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 치우친 지역 산업구조를 못 벗어난 원인에서 고비용 저효율 영향이 크다.

산업구조 변화를 서둘려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도와 창원시에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 정책실현이 시급하다.

장단기적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신진약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속화를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 인프라 구축 뒤따라야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해가 전기차 판매 원년이라면 올해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핵심은 전기와 자율 주행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지난해 2만5000대에서 2022년 35만대, 2030년 300만대까지 늘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겠다고 선언했다. 10여년 동안 무려 100배 이상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는 애심에 찬 계획이다.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 거리와 충전 문제 해결을 위해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자동차와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슈퍼차저」 충전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글로벌 미래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는 환영할 일이다.

전기차와 허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은 제조업체의 기술개발과 전기차의 기본인 배터리의 경량화 및 원가 감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 까지는 배터리의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 역시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값이 턱없이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을 선뜻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도 전기차 충전소는 물론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기차 보급은 전기차 운행과 관련된 충전 시스템 구축이 시장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여서 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충전시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장시간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 도로 주행 시 필요한 급속충전기, 배터리만 교환하는 배터리 충전소를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통정책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2020년대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와 가격대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정착되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도 서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길 기대한다.

뉴스경남

등록일 2009년 4월 24일(일)

회장·발행·편집인 권 성덕	사장 이상성	인쇄인 엄 용선(태산미디어)	편집국장 박일우
사회부 (055) 744-2301	기획취재부 (055) 742-1800	서울지사 (031) 881-5279	
정경부 (055) 744-2302	광고부 (055) 744-2304	서울팩스 (031) 881-5279	
문화부 (055) 744-2303	경영부 (055) 744-2300	광고팩스 (055) 744-2305	

(우)52794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04-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료 월정 10,000원

2018 창원국제실내악축제 200% 즐기기



피아니스트 송영민

새봄을 맞아 '2018 창원국제실내악축제'(Changwon International Chamber Music Festival, 이하 CHAMF)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창원에서 열린다.

창단 71주년을 맞이한 완벽한 호흡의 실내악 양상을 애나체 스트링 콰르텟을 비롯해 뮤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더블베이스 수석 슬라보미르 그렌다, 서울비른트루오지侵害오케스트라, 뷔에르 앙상블 등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 150여 명이 창원에 모인다.

이번 축제는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를 비롯해 창원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다. 벚꽃이 핀 뒤에 창원 곳곳을 찾을 때쯤 실내악의 선율로 새봄의 소식을 전할 예정인 CHAMF,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관전 포인트를 소개한다.

◇장일범, 송영민과 함께하는 공연 프리뷰

'음악을 이야기하는 남자' 장일범, JTBC 드라마 '밀회'의 오리지널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함께 클래식과 친해지는 시간이 된다.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들어보면 클래식만큼 스페셜리를 하고 드라마틱한 장르도 없다. 재미있는 클래식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렵지 않다. 공연 당일 30분만 일찍 도착하면 된다. 9개의 CHAMF CHOICE 공연을 찾는 관객들이 실내악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프리뷰를 진행한다.

'음악을 이야기하는 남자'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JTBC 드라마 '밀회'의 오리지널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매 공연 30분 전부터 20분간 연주자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감상 포인트를 짚어준다.

프리뷰어(previewer)들이 알려주는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연주

를 감상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아니스트 송영민은 관객들이 보다 쉽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멜로디를 짧게 연주하며 작곡가가 작품에 투영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코 음악의 진수 애나체 스트링 콰르텟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이루어진 협약4중주는 흔히 16줄로 이뤄진 한 악기의 소리로 비유될 정도로 오랜 연습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화를 중요시한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애나체 스트링 콰르텟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물 흐르는 듯이 유연한 연주를 선보이는 체코의 대표적 실내악 양상들이다.

뿐만 아니라 애나체 스트링 콰르텟은 민족주의적 체코 음악의 전통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진지한 열망과 희망을 담은 것이 체코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이다. 이번 축제에서 애나체 스트링 콰르텟은 체코 작곡가의 대부 스메타나부터 애나체 그리고 수크까지 체코 현대음악의 거장들을 수집한 무대를 선보인다. 잘 다듬어진 사운드와 완벽한 밸런스로 체코음악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실내악의 미래, CHAMF 2018 창작곡 시리즈

CHAMF 2018을 찾는 관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 바로 창작곡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듣는 특권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7개의 창작곡이 발표된다. 먼저 작곡가 최천희의 가야금과 협약4중주를 위한 '산조'를 비롯해 창원 지역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호준, 전우용, 조우성 작곡가의 창작곡들이 소개된다. 창작곡의 연주에는 일본의 실내악 양상을 헤미 협약4중주와 가야금 연주자 이언화님이 함께한다. 여기에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인 작곡가 김성국과 창원대 김한기 교수의 작품이 각각 개·폐막 공연에서 세계 초연된다.

◇베토벤을 사랑하는 클래식 애호가 프로그램

인디애나주립대학교 제이콥 음대 교수진들로 구성된 바이스 카풀란 스텁포 트리오(미국)는 베토벤의 작품을 다채롭게 해석해 훌륭히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 바이스 카풀란 스텁포 트리오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 작품 70-1 '유령'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주제 선율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주제 선율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갖춘 곡들이다. 처음에 나온 주제 선율을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어떻게 다시 재현되는지를 기대하면서 연주

를 듣는 것은 하나의 감상TIP이 될 것이다.

◇멘델스존의 협약8중주

올해 축제에서 연주될 프로그램들은 매우 풍성하다. 고전 시대 위대한 작곡가들의 실내악곡부터 낭만주의 실내악곡과 체코 민족주의 작품들 여기에 현대 창작 실내악곡들까지.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은 멘델스존의 스트링 옥텟 내림마장조 작품 20이다. '옥텟'이라니 이름부터 생소하다. 실내악 작품은 3명 또는 4명이 연주하는 트리오와 콰르텟의 구성이 가장 일반적이기

장일범·송영민과 함께하는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아외 빛꽃 나무 아래서 만나는 디체로움도 마련

통기타를 메고 달달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창원거리아티스트 판꾼들이 아외 공연의 문을 열고 경남브라스 금관5중주와 아르끼 협약4중주팀이 무대를 이어간다.

2일, 4일과 6일에는 경남 브라스 금관5중주의 화려하고 응장한 연주가 예정돼 있고, 3일, 5일과 7일에는 아르끼 협약4중주 팀이 벚꽃축제에 어울리는 하모니로 군함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7일에는 오후 4시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국내오케스트라 수석 주자들과 솔리스트 브라스 연주자들로 구성된 금관 양상을 코리안 아츠 브라스가 축하 공연을 연다.

아외공연은 실내 공연장 입장이 어려운 미취학 어린이 관객들도 실내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린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트럼펫, 흐른, 트롬본, 듀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담았다. 꽃비가 내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인사를 건네 보자. 안녕, 악기야!

관객들을 미치고 팔짝 뛰게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악단광칠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황해도 지역의 옛 음악을 소재로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음악으로 전국을 유망하는 창작 국악그룹이다. 관객들을 환영하는 노래 '모십니다'를 시작으로 소망을 빌어주는 '얼씨', 만선의 기쁨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흥이 넘치길 바라는 '어차'까지 3명의 보컬과 6명의 연주자들이 농밀한 호흡으로 발랄하고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 장르의 경계를 깨는 그란탱고카르데토와의 신선한 콜라보레이션도 준비돼 있어 기대가 된다. 고택음악회는 막이 내리고 나면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워질 것이다. 문재일 기자



바이스 카풀란 스텁포 트리오



'음악을 이야기하는 남자' 장일범

창간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장을 대변하는
양산시의회

양산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밝고 깨끗한 의회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father carrying his young child on his shoulders, both smiling, set against a backdrop of pink flowers and green grass. In the background, the modern, multi-story city hall building is visible under a clear blue sky. The N Seoul Tower is also visible in the distance. The overall theme is one of a happy, vibrant community.